

CONTENTS

1. 국내펀드 동향
2. 해외펀드 동향
3. 현금유출입 동향
4. 변액보험

〈국내펀드〉

10월 주식펀드, 4개월 만에 하락

〈해외펀드〉

글로벌 증시 하락... 신흥국 강세에 해외주식펀드
4.13% ↑

〈현금유입〉

주식펀드 환매 지속, 유출폭은 줄어

〈변액보험〉

변액 일반주식 2.71% 하락, 일반펀드보다 선방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09년 10월 주식시장 동향

10월 주식펀드, 4개월 만에 하락

주식시황

10월, 코스피 5.53%
하락

2009년들어 상승세를 이어온 주식시장이 3분기 어닝시즌 이후 실적개선의 지속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환율 상승과 외국인 매도세로 전환되며 코스피가 10월 한달간 5.53%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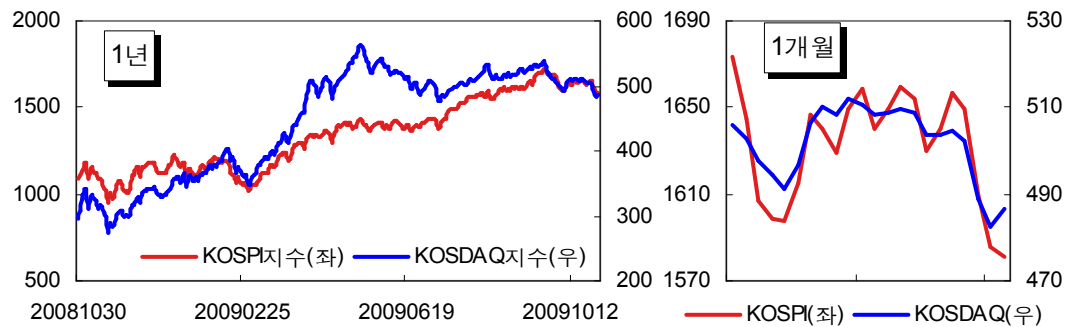
3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대비 2.9% 증가하며 7년 반만에 최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기업들의 실적 역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3분기까지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과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출구전략이 임박했다는 인식도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10월 발표된 美 경제지표 중 정책 영향력이 컸던 주택관련지표 등은 양호한 모습을 띄고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가능할 수 있는 소비관련지수 등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났고, 미국 지방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1년전 금융위기의 기억을 되살리며 금융불안 문제가 다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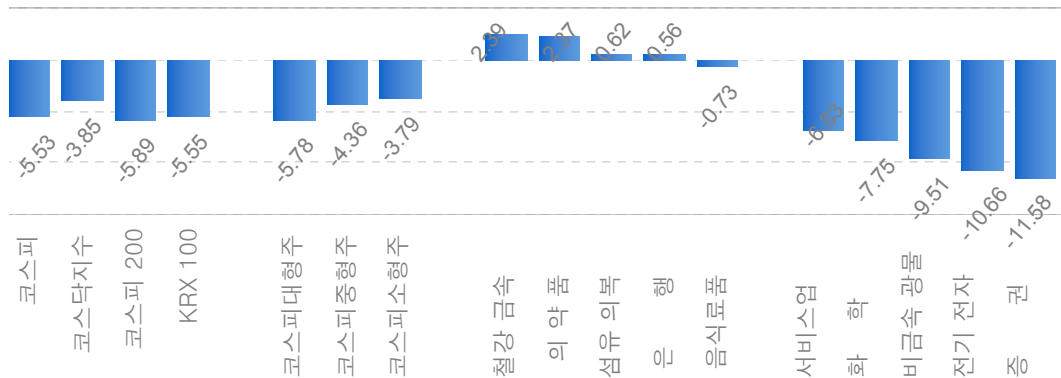
그간 달러캐리자금이 전방위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주식, 채권, 외환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자금 이동에 따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10월들어 1,600선에서 1,65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전환되면서 29일 1,600선을 하회했고, 1580.5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주가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09년10월30일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월간 수익률



2009년 10월 채권시장 동향

채권 시장

국고채 3년물 금리
소폭 상승

만기 1년 이하 채권
금리 하락

10월 시중금리는 경기호전 및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일시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금리 급등에 따른 저가매리트 부각, 美 소비심리 부진, 경기선행지수 증가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초 채권시장은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짐에 따라 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10월초 금통위에서 한은총재는 '9월 금통위에서의 발언을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처럼 해석한 것은 지나쳤다'고 언급함에 따라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시장금리는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단기물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어 큰 폭의 금리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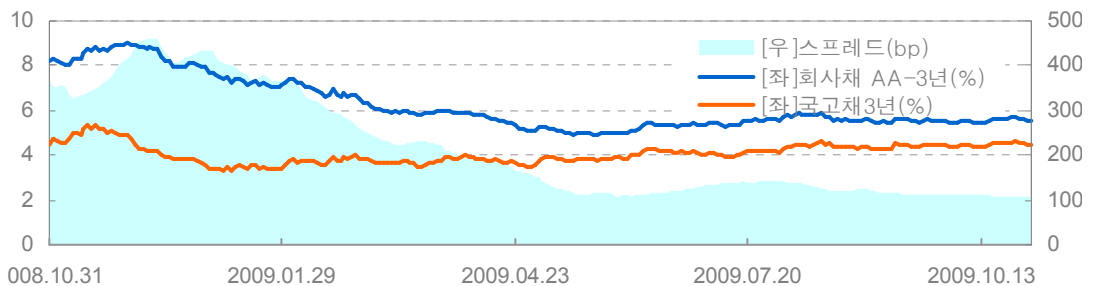
그러나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총재가 기존의 통화정책과 달리 '25bp 이상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시장금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FED의 출구전략 조기화 관측, 씨티글로벌국채지수(WGBI)편입지연, 외화차입규제설, 환율반등, 달러캐리의 약화 등이 복합되며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가 폭증하며 중장기물 금리는 전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고, 신용스프레드 축소세가 전개된 가운데 3분기 GDP성장을 서프라이즈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채권금리는 하락세로 반전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월후반들어 국채선물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금리하락을 이끌었다.

결국 30일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4.44%를 기록했고, 국고채 5년물은 0.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고채 1년물은 0.02%포인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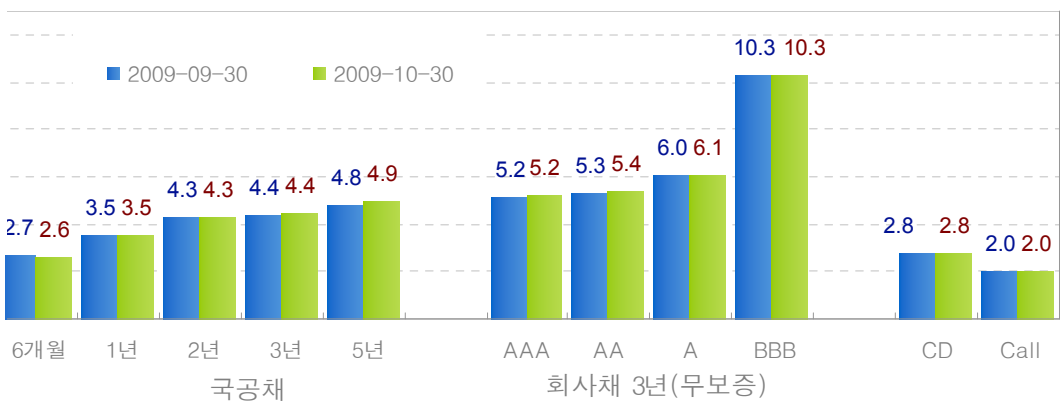
국내채권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09년10월30일



월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09년10월30일



자료:본드웹

2009년 10월 주식 펀드 동향

주식형 펀드 성과

국내주식펀드, 10월간
5.57% 하락

중소형주식펀드, 배당주
식펀드 선방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11월 2일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10월 한달간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펀드는
코스피를 소폭 하회한 -5.5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주의 낙폭이 중소형주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코스피200지수를 추종
하도록 만들어진 인덱스 펀드는 6.21% 하락해 주식형펀드 중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일반주식펀드는 코스피수익률과 동일한 -5.53%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3.09%, 4.01%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낮은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
2.52%, -1.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453	449,666	-5.53	4.12	43.12	43.08
	중소형 주식	16	3,210	-3.09	0.99	55.57	46.09
	배당 주식	33	37,451	-4.01	4.46	45.98	41.33
	KOSPI200인덱스	108	60,467	-6.21	1.74	42.35	40.93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67	17,818	-2.52	2.24	25.70	23.11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210	35,752	-1.39	1.41	16.48	13.70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17	9,048	-0.21	0.11	10.99	8.72
	시장중립	29	4,825	0.37	0.60	4.23	2.60
	공모주하이일드	58	5,069	-0.08	0.15	7.02	5.53
KOSPI				-5.53	1.50	42.01	40.57
KOSDAQ				-3.85	-3.55	57.93	46.50

주1)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 국내 주식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주식 펀드 성과

145개 펀드 코스피 수
익률 하회

대형주펀드 하위권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360개의 주식펀드(기타인
덱스펀드 제외)중 전 펀드가 하락한 가운데 145개 펀드가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했다.

중형주와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상위권에 포진해있으며 약세장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주, 자산가치주 등이 많이 편입된 가치형 펀드들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에 수출주가 조정을 받아 이에대한 비중이 높은 그룹주 펀드들은
하위권에 자리했으며 대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200인덱스 펀드의 성과도
저조했다.

‘세이고배당 (주식)’ 0.65% 하락에
그치며 월간성과 1위

펀드별로 살펴보면 중형가치스타일의 ‘세이고배당 (주식)’이 -0.65%로 1위를 기록했다. 소형가치스타일의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는 각각 -1.03%, -1.1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보학사콜인덱스 1(주식-파생)Class A 1’를 비롯해 ‘푸르덴셜프리엠브렐러BULL인덱스 전환 1(주가지수선물-파생)’, ‘한국투자엠브렐러인덱스 전환 1(주식-파생)(A)’ 등 코스피200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들이 하위권에 자리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세이고배당 (주식)	536	배당주식	-0.65	5.45	39.95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주식)	1,473	일반주식	-1.03	3.17	44.51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	10,861	일반주식	-1.12	2.85	38.82
알리안츠Best중소형 [주식](C/B)	148	중소형주식	-1.54	4.05	66.3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자 1	199	일반주식	-1.72	7.81	57.29
유리스몰뷰티 [주식]C/C	698	중소형주식	-1.95	0.11	37.98
신영밸류고배당 (주식)C 1	3,551	배당주식	-2.87	4.21	42.84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 (주식)	5,633	배당주식	-2.89	3.51	39.31
동양중소형고배당 1(주식)	567	중소형주식	-2.89	-0.44	54.37
신영고배당 (주식)A	954	배당주식	-2.94	3.82	40.23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교보학사콜인덱스 1(주식-파생)Class A 1	278	K200인덱스	-7.77	1.10	41.96
미래에셋맵스5대그룹주 1(주식)종류A	526	테마주식	-7.53	2.46	55.22
푸르덴셜프리엠브렐러BULL인덱스 전환 1(주가지수선물-파생)	491	K200인덱스	-7.24	0.71	38.36
한국투자엠브렐러인덱스 전환 1(주식-파생)(A)	539	K200인덱스	-7.12	1.05	39.28
미래에셋맵스KOSPI200인덱스 1(주식-파생)종류C-e	277	K200인덱스	-6.98	1.26	44.22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 1(주식)A	579	테마주식	-6.94	4.76	51.53
한화Smart++ 인덱스 2(주식-파생) (C2β)	145	K200인덱스	-6.90	0.93	
우리SK그룹우량주플러스 1(주식)A1	306	테마주식	-6.87	0.40	43.6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K- 3Class A	4,218	일반주식	-6.85	2.99	41.91
하나UBS엠브렐러뉴인덱스 K- 1(주식-파생)Class C	794	K200인덱스	-6.83	0.61	36.98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2009년 10월 채권 펀드 성과

채권형 펀드 성과

국내채권형펀드
0.27% 상승

채권펀드는 10월 한달간 0.2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채권 펀드는 같은 기간동안 0.4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일드채권펀드는 0.60%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중장기채권에 투자하고있는 일반중기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는 같은 기간 0.22%, 0.21%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 초단기 채권펀드는 0.3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 자산액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41	12,279	0.40	1.09	8.20	5.30
	초단기채권	4	1,344	0.34	0.76	4.91	3.41
	일반중기채권	22	25,842	0.22	0.73	8.75	2.47
	우량채권	15	11,196	0.21	0.48	5.70	2.15
	하이일드 채권	7	620	0.60	1.55	7.09	5.39
KIS채권지수(1년 종합)				0.45	0.72	5.97	3.55
MMF	MMF	131	649,668	0.21	0.57	3.09	2.21

주1) 순자산액 50억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채권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채권 펀드 성과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58개 펀드 중 1개 펀드를 제외하고는 10월 한달간 모두 플러스 성과를 거뒀다.

단기채권금리가 하락하며 이들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회사채 비중이 높은 펀드들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펀드별로는 '아이러브평생직장 6(채권)Class C2'가 0.57%의 수익률로 10월 성과 1위를 차지했다. 뒤를이어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10 1[채권] Class C',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4Class C 2' 등 회사채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반면 장기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하위권에 자리하며 하위 10개 펀드 중 9개가 중기채권에 속한 펀드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장기주택마련 1[채권]'은 -0.08% 수익률로 채권펀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국내 채권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아이러브평생직장 6(채권)Class C 2	456	일반채권	0.57	1.79	8.74
하나UBS분리파세고수익고위험10 1[채권]Class C	155	하이일드채권	0.54	1.31	5.48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4Class C 2	444	일반채권	0.53	1.91	10.75
동양High Plus 1(채권)A	292	일반채권	0.53	1.29	7.51
하나UBS클래스원장기 S- 1[채권]	135	일반채권	0.48	1.26	6.04
한국투자퇴직연금 자 1(국공채)	255	우량채권	0.46	0.86	3.72
하나UBS장기 1[회사채]Class C	142	일반채권	0.45	1.38	6.33
현대플래티늄장기회사채형 자(채권)C 2	811	중기채권	0.45	1.15	
신한BNPP BEST CHOICE단기 4[채권]	229	일반채권	0.42	0.95	4.91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 전환 1(채권)	117	일반채권	0.41	0.61	2.82

국내 채권형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삼성장기주택마련 1[채권]	163	중기채권	-0.08	0.29	0.77
KB장기주택마련 1(채권)	429	중기채권	0.03	0.39	9.00
미래에셋맵스TIGER국채 3 상장지수(채권)	1,232	중기채권	0.10		
와이즈Premier12 2(채권)	309	중기채권	0.10	0.05	3.10
우리KOSEF국고채상장지수 [채권]	3,461	우량채권	0.10	0.41	
삼성KODEX국고채권 상장지수[채권]	773	중기채권	0.10	0.39	
KB퇴직연금 자(채권)	147	중기채권	0.10	0.49	2.37
한국투자KINDEX국고채 상장지수(채권)	1,134	중기채권	0.10	0.44	
KStar국고채 상장지수(채권)	3,003	중기채권	0.11	0.40	
삼성ABF Korea인덱스 [채권](A)	2,851	중기채권	0.15	0.68	1.08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09년 10월 해외펀드 동향

글로벌 증시 하락... 신흥국 강세에 해외주식펀드 4.13% ↑

글로벌 주식시황

글로벌 주식시장,
전강후약

10월
MSCI글로벌주식
2.0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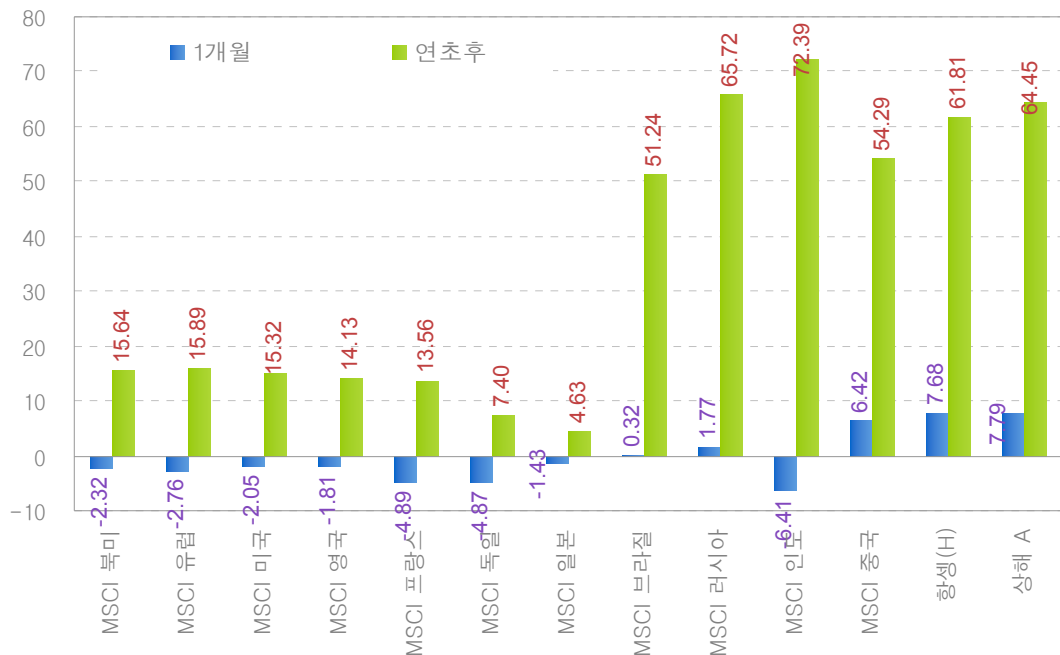
글로벌 주식시장은 기업실적 호전 발표 등에 힘입어 대부분 연중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수준이 거품 논란을 일게했던 07년 수준에 접근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월 후반들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럽권 최초로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글로벌 출구전략이 가시화된 가운데 미국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기점으로 연준의 미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며 유동성 모멘텀 약화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MSCI 글로벌주식은 한달간 2.09%하락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투기적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부추겼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상품값 상승을 견인해 러시아와 브라질주식 등 관련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다.

해외 주식 주요 지수 등락률

(기준일 : 2009년 10월 30일)



자료: 이데일리

MSCI북미주식
2.32% 하락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더딘 경기지표 회복세가 관측되며 투자심리를 제한해 조정세를 보인 가운데 MSCI북미주식은 2.32% 하락했다.

하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기대에 못미친 제조업 지표와 예상치를 웃돈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악재로 작용하며 낙폭을 키웠다. 여기에 공장주문이 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자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 하지만 인텔과 JP모간체이스 등 주요기업들이 기대이상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다우지스는 14일 1년만에 1만선을 돌파했고, 연방준비은행(FRB) 위원들이 전반적인 경기전망에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투자심리를 자극go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월 후반들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대비 하락반전한데다 10월말 국채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기점으로 연방준비은행의 미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며 유동성 모멘텀 약화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MSCI유럽주식,
-2.76%**

유로존의 9월 제조업 PMI는 49.3으로 작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기신뢰지수는 6개월 연속 상승했다. 8월 산업생산도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유럽증시는 상승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8월 무역수지가 6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와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고 뉴욕증시가 경기지표 실망에 조정세를 겪으면서 유럽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MSCI유럽주식은 2.76% 떨어졌다.

**MSCI일본주식,
1.43% 하락**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주들의 향후 실적 약화 우려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하락세로 출발한 일본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호재로 인한 뉴욕증시 상승으로 일본증시도 전반적인 상승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월말 뉴욕증시 하락에 일본증시도 탄력을 잃으며 MSCI일본주식은 전월대비 -1.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9월 백화점 매출이 전년대비 7.8% 감소했고, 주택착공건수도 전년대비 37% 급감하는 등 일본의 소비 및 주택시장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점도 증시 하락에 일조했다. 특히 9월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30.7% 감소한 점이 향후 일본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MSCI중국주식,
6.42% 상승**

10월 MSCI중국주식은 전월대비 6.42% 상승 마감했다. 9월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가 예상치인 4,400억위안을 상회하는 5,147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풍부한 유동자금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인해 9월 수출 감소폭이 전년대비 20.1%로 예상보다 둔화된 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MSCI인도주식,
6.41% 하락**

인도증시는 월중반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이기지 못하고 MSCI인도주식은 한달간 6.41% 하락했다. 8월 산업생산 지표가 10.4% 상승, 2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증시 역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빠른 경기회복에 조기 금리인상 및 출구전략 가능성이 커지고, 대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미국증시 하락에 인도증시 역시 내림세를 겪었다.

**MSCI러시아주식,
1.77%**

러시아 증시는 여전히 유가와 강한 연관관계를 보였다. 유가가 8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이르면서 MSCI러시아주식은 26일까지 강세를 나타내며 지난 9월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유가 조정과 글로벌 증시약세,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향후 에너지수출전망에 확신이 약해지며 월 후반들어 증시가 폭락하며 MSCI러시아 주식은 1.77% 상승 마감했다.

**MSCI브라질주식,
0.32% 상승**

브라질 역시 자원 수출국으로써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전망의 영향으로 폭등했지만 19일 이후부터 조정 흐름을 보이며 MSCI브라질주식은 0.32%상승에 그쳤다. 내수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외국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브라질 증시는 그간 상승세가 과도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브라질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신흥국주식펀드
강세에, 해외주식
펀드 4.13% 상승

상품관련 펀드
상위권

해외 펀드 세부 유형별 성과

글로벌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주식펀드의 강세에 해외주식펀드는 한달간 4.13%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투기적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부추겼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상품값 상승을 견인하며 관련 펀드들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유가 상승과 러시아의 경기회복으로 러시아주식펀드와 유럽신흥국주식펀드가 각각 6.66%, 5.2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남미신흥국주식펀드도 외국인의 주식매수에 힘입어 5.95% 상승했다. 기초소재섹터펀드는 3.87% 성과를 올렸다. 중국주식펀드 역시 6.50% 상승했고, 브릭스 국가중 인도주식펀드만이 1.98% 하락했지만 이 역시 2.09% 떨어진 MSCI 글로벌주식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브릭스 중심의 신흥국주식펀드들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주식펀드와 일본주식펀드는 각각 1.75%, 1.31%씩 하락했고, 북미주식펀드는 0.30%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해외주식혼합과 해외채권혼합펀드는 각각 2.06%, 0.5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상품관련 실물 및 인덱스에 투자하는 커머더티펀드는 11.46% 급등했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766	426,121	4.13	6.12	52.26	51.15
	글로벌주식	64	4,860	-0.68	4.90	19.04	25.05
	글로벌신흥국주식	120	117,027	4.95	11.65	57.19	62.99
	유럽주식	33	4,451	-1.75	7.86	12.12	15.30
	북미주식	7	189	0.30	5.73	5.01	15.93
	아시아태평양주식	19	4,250	-0.97	1.26	34.07	31.61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43	31,009	0.08	2.43	42.90	39.74
	동남아주식	26	6,297	-1.11	4.66	51.84	51.25
	아시아신흥국주식	42	26,085	1.04	3.28	53.58	51.17
	유럽신흥국주식	21	7,237	5.28	20.93	33.90	62.92
	남미신흥국주식	31	12,027	5.95	19.60	61.46	75.13
	프론티어마켓주식	12	493	-1.17	6.71	-2.17	13.32
	일본주식	45	4,330	-1.31	-4.80	-3.63	-2.25
	중국주식	121	163,467	6.50	1.83	60.73	48.79
	인도주식	24	15,600	-1.98	5.16	65.35	67.25
	브라질주식	21	4,221	6.96	21.98	86.65	105.40
	러시아주식	19	5,629	6.66	28.65	47.02	103.63
	에너지섹터	22	3,007	-1.83	1.44	8.88	14.20
	기초소재섹터	25	5,851	3.87	10.13	42.34	43.99
	소비재섹터	11	813	-0.85	7.08	15.02	29.20
	헬스케어섹터	4	491	-2.54	2.27	11.34	11.31
	금융섹터	16	2,163	-1.58	7.53	23.53	39.97
	멀티섹터	28	6,174	-0.46	4.48	9.18	17.68
해외주식혼합형		48	46,211	2.06	7.35	46.68	53.83
해외채권혼합형		60	3,880	0.53	2.72	18.23	16.00
해외채권형		14	6,392	1.54	8.17	23.16	20.53
해외부동산형		34	12,280	-1.99	3.66	-1.96	5.20
커머더티형		37	3,675	11.46	9.24	4.97	18.01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설정액 10억원(채권형은 5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개별 해외 펀드 성과

신흥국주식펀드 성과우수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이상인 342개 해외주식펀드 중 236개 펀드가 플러스(+)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고, 인도와 글로벌주식의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저조했다.

‘미래에셋맵스TIGER라틴상장지수(주식)’ 1개월간 8.36% 상승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맵스TIGER라틴상장지수(주식)’가 8.36%로 월간성과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 6위까지를 중국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싹쓸이했다.

반면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 자 1[주식](A)’는 -7.11%로 최하위에 자리했고, ‘KB인디아 자(주식)A’, ‘신한BNPP봉쥬르인디아 자(H)[주식](종류A 1)’ 등 인도주식펀드도 하위권에 자리했다.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09년11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맵스TIGER라틴상장지수(주식)	199	남미신흥국주식	8.36	18.25	82.93
삼성CHINA2.0본토카멜레온 자 2[주식]	104	중국주식	8.16		
삼성CHINA2.0본토 자 1[주식](A)	954	중국주식	8.15	-6.91	
삼성KODEX China H 상장지수[주식]	1,709	중국주식	7.97	1.31	55.31
미래에셋맵스차이나H인덱스 1(주식)종류A	288	중국주식	7.82	4.59	55.26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 2(주식)종류A	6,080	중국주식	7.73	2.09	57.78
NH-CA러-브 [주식]Class A 1	162	글로벌신흥국주식	7.70	21.77	101.41
한화카자흐스탄 1(주식)(A)	101	기타국가주식	7.61	24.96	76.92
신한BNPP더드림브라질 자 1[주식](종류A)	127	브라질주식	7.61	27.30	122.37
PCA China Dragon A Share자A- 1[주식]Class A	2,617	중국주식	7.60	-12.73	38.64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연초후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 자 1[주식](A)	449	에너지섹터	-7.11	-3.63	11.79
KB인디아 자(주식)A	880	인도주식	-4.34	4.81	54.48
하나UBS글로벌금융주의귀환 [주식]Class A	236	금융섹터	-3.43	12.95	31.45
삼성당신을위한N재팬 자 2[주식](A)	107	일본주식	-3.09	-3.62	-0.91
알리안츠GI글로벌에코테크 [주식](C/A)	589	에너지섹터	-2.99	-0.92	9.03
NH-CA코리아재팬올스타 1[주식]Class A	310	아-태주식	-2.94	-0.38	17.77
푸르덴셜일본주식&리츠 1(주-재간접)A	183	일본주식	-2.67	-5.16	2.73
신한BNPP봉쥬르인디아 자(H)[주식](종류A 1)	406	인도주식	-2.65	5.92	45.42
KB스타유로인덱스 (주식-파생)A	252	유럽주식	-2.65	5.88	12.15
PCA아시안리더스 자P- 1[주식]Class A	121	아-태주식(ex J)	-2.62	-3.73	18.28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세계 주요 지수 기간별 성과

(기준일 : 2009년 10월 30일)

(단위: %)

지역별 주요 지수		종가	수 익 른					상관 계수
			1개월	3개월	1년	5년	연초후	
MSCI 지수 (CR)	글로벌 주식	299.50	-2.09	4.22	12.42	1.22	18.30	0.51
	신흥국 주식	40,154.97	-0.49	5.45	47.88	2.41	47.40	0.76
	북미주식	1,127.69	-2.32	4.37	7.82	-1.37	15.64	0.27
	남미신흥국주식	6,746.82	-0.65	9.86	48.82	2.63	44.50	0.33
	유럽주식	1,056.44	-2.76	6.65	10.68	1.33	15.89	0.41
	유럽신흥국주식	4,207.91	1.65	12.58	32.47	2.04	55.87	0.51
	아-태주식	97.16	-1.29	-0.26	22.35	1.73	23.89	0.78
	아-태주식(일본제외)	402.78	-1.17	4.44	44.41	2.24	45.16	0.82
	아시아신흥국주식	573.82	-1.12	2.90	57.15	2.40	53.33	0.85
	일본주식	554.49	-1.43	-5.92	2.89	-1.73	4.63	0.66
MSCI WI 섹터지수 (CR)	중국주식	62.94	6.42	3.05	77.84	2.79	54.29	0.68
	브라질주식	22,155.012	0.32	11.27	51.42	2.66	51.24	0.31
	러시아주식	683.09	1.77	15.11	28.63	1.96	65.72	0.49
	인도주식	636.49	-6.41	2.89	66.29	2.78	67.82	0.48
	에너지	202.49	1.19	8.06	8.00	2.07	12.64	0.34
	기초소재	174.04	-2.69	1.63	23.44	2.05	28.47	0.54
	산업재	107.19	-3.75	3.90	9.05	-1.33	12.25	0.51
	소비재(비생필품)	78.74	-1.80	2.30	13.40	-1.71	24.71	0.50
	소비재(생필품)	110.62	1.24	5.68	7.42	1.94	9.48	0.35
	헬스케어	89.51	-1.93	1.92	2.65	1.26	4.49	0.28
섹터지수 (CR)	금융	72.60	-5.04	5.63	3.75	-2.00	19.97	0.42
	IT	43.91	-0.13	7.33	26.70	1.71	25.64	0.33
	통신서비스	48.14	-2.80	1.39	5.85	-1.52	-1.73	0.32
	공공서비스	100.23	-5.19	-0.70	-7.02	1.67	-7.58	0.35
	KRX 자동차	1,009.19	-3.09	18.18	80.71	2.47	125.30	0.79
	KRX 헬스케어	1,142.60	2.05	2.84	51.42	2.87	18.32	0.62
	KRX 은행	946.13	-2.68	10.40	83.74	2.41	86.63	0.72
	KRX IT	1,068.39	-8.63	1.67	52.45	2.43	74.11	0.90
	KRX 반도체	1,397.18	-6.31	12.06	98.83	2.79	118.33	0.86
	글로벌 채권 지수	JPM GBI	155.88	-0.12	1.37	4.03	1.87	-0.16
	JPM EMBI	228.91	0.20	6.94	34.07	2.07	23.52	0.42
상품(종가)	WTI(\$/배럴)	76.95	9.49	11.31	13.46		72.49	0.18
	두바이유(\$/배럴)	77.09	18.00	13.74	38.30		111.50	0.21
	금(\$/온스)	1,040.40	3.21	9.09	44.86	2.70	17.65	0.02
	대두(\$/부셸)	978.00	5.50	-13.76	5.71	2.45	0.60	0.16
	옥수수(\$/부셸)	366.00	6.40	7.84	-8.82	2.42	-10.07	0.09
	설탕(\$/lb NYBOY)	22.16	-8.13	19.08	86.38	2.77	89.56	0.11
CRB 상품 가격 지수	270.00	4.24	5.06	0.92	1.55	17.96	0.24	
리츠	글로벌	1,473.69	-1.28	11.45	16.38	-1.36	25.69	0.47
	유럽	1,811.08	2.63	23.25	23.37	-1.39	34.53	0.41
	아시아	1,445.86	0.38	4.08	37.65	1.89	37.96	0.65
	호주	639.20	-9.16	11.87	-21.68	-2.20	-7.56	0.36
	일본	1,630.33	-1.04	-9.85	-6.23	1.60	1.82	0.54
환율 원/각국통화 (단위 : 원)	미국(달러)	1,183.50	0.51	-3.20	-8.05	1.42	-6.83	-0.40
	일본(100엔)	13.00	-1.04	1.23	-0.47		-6.61	-0.51
	유로(EURO)	1,747.82	1.61	0.91	6.69		-1.52	-0.32
	영국(파운드)	1,955.80	3.95	-3.40	-5.48		5.04	-0.21
	브라질(레알)	681.16	2.92	3.96	12.54	2.36	27.09	-0.02
	인도(루피)	25.21	2.40	-1.18	-2.93		-3.19	-0.26
	러시아(루블)	40.63	3.62	4.42	-14.77	1.35	-5.95	-0.34
	중국(위안)	173.20	0.36	-3.68	-8.26	1.95	-6.03	-0.42

주요 리보 금리

리보(6개월) (단위: %, %P)	종가	2009년 9월 말	2009년 8월 말	2008년 말	2007년 말	등락폭	
미국	0.99	1.01	1.08	2.98	4.71	-0.02	-0.09
유로	0.81	0.74	0.91	2.96	5.94	0.07	-0.10
영국	0.53	0.55	0.60	0.95	0.98	-0.02	-0.07
일본	0.56	0.63	0.76	1.75	4.60	-0.06	-0.19
한국(코리보)	3.24	3.20	2.90	4.93		0.04	0.34

주1) 5년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자료: 이데일리

주2) 상관계수: 최근 3년간 코스피200지수와 상관관계를 계산한 것임.

주3) CR(Capital Return):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주가지수로 계산.

주4) JPM GBI: JP모건 글로벌 채권지수(JPMorgan Government Bond Index Global TR)

주5) JPM EMBI: JPM 글로벌 신흥국 채권지수(JPMorgan Emerging Market Bond Index Global TR)

주6) R/J CRB: Reuters-Jefferies CRB Index(TR)로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주요 19개

상품선물가격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산출한 지수임

주7) 리츠지수는 FTSE EPRA/NAREIT (TR)지수임.

주8) 리보금리: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통화별 대출금리로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기준 금리.

주9) 코리보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 7곳과 특수은행 3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 한국내 산출.

2009년 10월 펀드자금 동향

주식펀드 환매 지속, 유출폭은 줄어

공모펀드 자금동향

단기성 자금 대거 이탈

주식형에서도 환매 지속,
유출폭은 감소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10월말 현재 225조 2,425억원으로 집계, 전달에 비해 4조 1,603억원 감소(재투자분 제외)됐다.

주가수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채권형으로 유입이 지속됐으나 주식형, 혼합형, MMF 및 기타유형에서는 자금 이탈이 이어졌다.

유형별 실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증시의 조정으로 주식형에서는 환매가 축소되며 8,35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고, 경기 회복에 따라 부동산펀드가 단기상품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지속되며 MMF는 2조 2,242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은 안정적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해외채권펀드를 중심으로 1,411억원이 유입됐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입 규모는 전달에 비해 축소됐고, 국내채권형의 경우는 225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공모펀드 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1월 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2,579	1,264,956	-11,342	1,068,137	52.50	-8,350
혼합형	1,269	152,804	-1,614	142,448	7.00	-1,347
채권형	427	68,039	1,257	70,258	3.45	1,411
MMF	232	651,813	-22,126	661,920	32.53	-22,242
기타	1,275	114,813	-7,778	91,920	4.52	-4,664
총 계	5,782	2,252,425	-41,603	2,034,683	100.00	-35,192
국내주식형	1,260	714,709	-3,669	640,579	31.48	-2,526
국내혼합형	1,047	89,298	-839	92,141	4.53	-702
국내채권형	378	61,982	-171	63,600	3.13	-225
국내MMF	232	651,813	-22,126	661,920	32.53	-22,242
국내기타	1,096	86,790	-7,149	72,540	3.57	-4,319
국내소계	4,013	1,604,592	-33,955	1,530,780	75.23	-30,013
해외주식형	1,319	550,247	-7,673	427,558	21.01	-5,824
해외혼합형	222	63,506	-775	50,307	2.47	-645
해외채권형	49	6,057	1,428	6,658	0.33	1,636
해외기타	179	28,023	-629	19,380	0.95	-345
해외소계	1,769	647,833	-7,649	503,903	24.77	-5,179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4)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5)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국내 주식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설정
액, 3,669억원 감소

설정액 감소폭 둔화

인덱스형에는 자금
유입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ETF제외)은 전달에 비해 3,669억원 줄어든 71조 4,70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유출액은 2,526억원으로 전월 2조 6,188억원 보다는 이달 규모가 축소됐다. KOSPI가 조정을 보이면서 주식형 환매를 주도했던 국내주식형의 이달 규모가 뚜렷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운용상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됐다.

세부유형별로 실제 유출입액을 살펴보면 일반주식펀드에서는 2,954억원이 유출됐고, 배당주식과 테마주식에서는 각각 319억원, 249억원이 빠져나갔다. 같은기간 중소형주식펀드도 30억원의 유출이 있었다.

반면 코스피200인덱스펀드로 891억원이 유입됐고, 기타인덱스펀드에는 133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국내 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1월 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759	532,624	-3,767	468,437	73.13	-2,954
중소형주식	42	3,618	-32	3,265	0.51	-30
배당주식	64	41,157	-320	37,531	5.86	-319
테마주식	179	83,944	-320	79,906	12.47	-249
K200인덱스	165	43,850	678	42,154	6.58	891
기타인덱스	51	9,516	92	9,286	1.45	133
총 계	1,260	714,709	-3,669	640,579	100	-2,526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해외 주식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7,673억원 감소

상품관련펀드에 자금
유입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전달에 비해 7,673억원 감소한 55조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이탈에도 불구하고 펀드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나며 같은기간 순자산액은 1조 1,116억원 증가한 42조 7,5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해외주식펀드에서 5,824억원이 빠져나간것으로 집계된 -5,182억원이 빠져나간 전달보다 유출규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러시아주식펀드 219억원, 브라질주식펀드 91억원, 기초소재섹터펀드 8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러시아주식펀드와 기초소재섹터펀드에는 전달에 이어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반면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 1,839억원, 중국주식펀 1,615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환매가 지속됐다.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1월 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권역별						
글로벌주식	99	7,432	-70	4,909	1.15	-38
유럽주식	60	6,669	-86	4,499	1.05	-59
북미주식	18	316	-4	224	0.05	-3
아시아태평양주식	28	5,337	-140	4,273	1.00	-117
아-태주식(ex J)	69	38,142	-934	31,135	7.28	-823
동남아주식	51	8,238	-163	6,346	1.48	-140
글로벌신흥국주식	197	140,155	-2,478	117,099	27.39	-1,839
아시아신흥국주식	62	35,439	-713	26,110	6.11	-566
유럽신흥국주식	43	12,267	-82	7,279	1.70	-50
남미신흥국주식	56	15,165	-151	11,896	2.78	-117
프론티어마켓주식	21	979	111	507	0.12	52
기타신흥국주식	6	45	-0	22	0.01	-0
섹터별						
에너지섹터	52	4,690	-116	3,065	0.72	-59
기초소재섹터	40	7,191	94	5,892	1.38	80
소비재섹터	20	1,213	-16	824	0.19	-11
헬스케어섹터	8	596	-9	506	0.12	-8
금융섹터	22	3,350	15	2,182	0.51	16
정보기술섹터	1	2	-17	2	0.00	-11
공공서비스섹터	2	135	-0	83	0.02	-0
멀티섹터	49	9,083	-126	6,209	1.45	-83
국가별						
일본주식	75	9,333	-268	4,322	1.01	-120
호주주식	2	23	-49	18	0.00	-38
중국주식	195	207,435	-2,320	164,180	38.40	-1,615
인도주식	52	18,493	-644	15,664	3.66	-583
브라질주식	38	4,302	103	4,203	0.98	91
러시아주식	29	13,713	392	5,725	1.34	219
타이완주식	9	194	8	148	0.03	6
말레이시아주식	5	48	-3	45	0.01	-3
기타국가주식	10	262	-7	189	0.04	-6
총 계	1,319	550,247	-7,673	427,558	100	-5,824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10월 신규 설정 펀드

한달간 109개 펀드 신규설정

10월 들어 총 109개 펀드(운용펀드 제외)가 신규로 설정됐다. 이중 24개 펀드는 10월 이전에 설정된 펀드 중에서 클래스펀드만이 추가로 설정된 펀드다. 이중 인터넷전용 펀드가 7개, 판매사립전용이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펀드 기준 55개

실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살펴보면 55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됐다. 이중 ELF가 22개로 운용펀드 기준으로한 신규설정펀드의 40%를 차지했다.

국내주식펀드로는 5개 펀드가 추가 설정됐는데 한국과 중국에 7:3 비율로 동시에 투자하는 'KB한중황금분할(주식파생)C-C'와 업종별 대표 우량주에

투자하는 'ING코리아국가대표 1(주식)종류A', MSCI코리아지수를 추종하는 '미래에셋맵스MSCI KOREA인덱스자(주식)종류A'가 눈에 띄었다.

해외주식펀드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14개 펀드가 추가설정됐다. 이중 중국주식펀드가 7개로 절반을 차지했고, 북미주식, 에너지섹터, 인도주식,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글로벌신흥국주식, 러시아주식, 금융섹터펀드들이 각각 1개씩 신규로 설정됐다.

11월 2일 기준으로 10월 한달동안 신규로 설정된 펀드의 설정액은 총 9,418억원으로 그중 MMF가 7,300억원으로 78%를 차지했다.

[류승미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10월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09년 11월 02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 체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109	22	277	37	386	59	
주식혼합형	287	3	-	-	287	3	
채권혼합형	107	9	0	2	107	11	
채권형	2	2	-	-	2	2	
절대수익추구형	30	3	-	-	30	3	
부동산형	-	-	-	-	-	-	
MMF	7,300	1	-	-	7,300	1	
기타	1,223	22	-	-	1,223	22	
커머더티형	-	-	83	8	83	8	
운용사 전체	9,057	62	360	47	9,418	109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주3) 10월 1일 ~ 10월 30일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 기준은 11월 2일 기준임.

10월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09년 11월 02일

단위: 개,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동부다같이법인MMF 2ClassC	동부자산운용	20091012	7,300	MMF
푸르덴셜TOP 3그룹분할매수목표전환(주혼-재간접)C	푸르덴셜자산운용	20091023	239	주식혼합형
신한BNPPHS- 1[ELS-파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91023	142	기타
신한BNPP제HS- 2[ELS-파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91030	127	기타
동양 2StarE- 2(ELS-파생)	동양투자신탁운용	20091006	124	기타
동양 2StarE- 3(ELS-파생)	동양투자신탁운용	20091016	118	기타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KB자산운용	20091012	90	해외주식형
KTB 2STOCK10[ELS-파생]	KTB 자산운용	20091021	82	기타
대신행복나눔SRI30[채혼]	대신투자신탁운용	20091026	73	채권혼합형
하나UBS Step Up Plus블루칩자 1[주혼]ClassC1	하나UBS자산운용	20091030	69	주식형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변액보험

변액 일반주식 2.71% 하락했지만 일반펀드보다 선방

변액보험 국내 성과

외국인 매수세 약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코스피가 10월 한달간 5.53%하락한 가운데 변액보험의 국내주식도 약세를 나타냈다.

일반주식펀드
10월 한달간 -2.71%

2009년 11월 2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10월 한달간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 펀드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보다 2.82%포인트 높은 -2.71%의 수익률 기록했다.

변액보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반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이 코스피수익률과 동일한 -5.53%의 수익률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성과다. 이는 변액보험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자산운용사의 일반주식펀드에 비해 낮아 코스피 하락에 따른 영향을 덜 입었기 때문이다.

10월 수익률

변액보험 배당주식이 -1.03%로 주식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KOSPI200인덱스펀드는 -4.31%로 코스피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고 3.84%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1.84%, -0.9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펀드의 경우 일반채권펀드는 0.1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에 비해 보유채권의 잔존만기가 길고, 국공채 투자비중이 높은 우량채권 펀드는 -0.10%로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58	78,308	-2.71	2.86	39.08	36.84
	배당주식	3	515	-1.03	4.96	48.39	37.52
	K200인덱스	14	3,335	-4.31	1.61	38.04	36.66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15	158,098	-1.84	1.77	23.73	21.25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159	120,439	-0.97	1.27	16.71	13.37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0	1,133	-0.46	0.45	8.95	4.71
KOSPI				-5.53	1.50	42.01	40.57
KOSDAQ				-3.85	-3.55	57.93	46.50
채권형	일반채권	106	24,775	0.14	0.59	6.09	2.44
	초단기채권	15	806	0.21	1.17	3.53	2.47
	우량채권	3	915	-0.10	0.35	3.26	-0.46
MMF	MMF	7	1,408	0.17	0.46	4.41	3.37
KIS채권지수(1년 종합)				0.45	0.72	5.97	3.55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1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들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해외 펀드 성과

중국주식펀드 3.32%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지표의 부진과 증시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약세로 전환했다. 글로벌 증시의 약세전환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신흥국 주식펀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주식형은 10월 한달 동안 0.89% 상승했다.

에너지섹터주식펀드 3.76%

이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주식형 평균수익률(4.13%)보다 낮은 수치다.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평균수익률은 투자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평균을 사용해 같은 기간 강세를 보인 중국펀드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재 수요 증가로 에너지섹터와 원자재섹터 펀드가 각각 3.76%, 3.61% 올랐고, 신규대출 증가로 유동성 우려가 완화된 중국 주식펀드도 3.32%상승했다.

해외주식혼합 0.33%

경기회복세를 보인 러시아와 유럽신흥국주식펀드가 각각 2.10%, 2.1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북미주식펀드는 증시약세에도 불구하고 0.26%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해외채권혼합 0.05%

반면 아시아태평양과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는 각각 -0.62%, -0.70%로 부진했고, 인프라, 기후변화, 농업관련산업 투자펀드들이 포함된 글로벌 멀티섹터펀드는 0.89% 하락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은 각각 0.33%, 0.0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해외 리츠 등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부동산형펀드는 -1.99%로 해외펀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73	14,793	0.89	6.67	33.24	34.86
	글로벌주식	13	2,054	-0.16	5.26	18.80	22.73
	글로벌신흥국주식	15	3,569	1.31	10.06	48.30	48.49
	유럽주식	5	49	-1.95	7.16	14.78	16.71
	북미주식	2	21	0.26	4.70	8.38	18.88
	아시아태평양주식	3	569	-0.62	2.87	27.94	29.85
	유럽신흥국주식	3	170	2.16	16.40	37.71	54.76
	아시아신흥국주식	6	5,954	-0.70	0.87	41.49	37.34
	남미신흥국주식	3	212	-0.22	12.60	54.85	59.28
	동남아주식	1	12	-0.01	8.45	38.15	39.07
	일본주식	1	38	0.56	-2.50	4.63	7.16
	중국주식	6	1,320	3.32	1.45	54.12	37.56
	러시아주식	1	8	2.10	17.86	42.52	76.16
	에너지섹터	1	123	3.76	10.13	24.55	35.99
	원자재섹터	9	389	3.61	6.77	15.28	24.32
	멀티섹터	4	307	-0.89	3.56	15.05	17.28
해외주식혼합형		80	31,374	0.33	3.56	23.90	21.91
해외채권혼합형		36	11,026	0.05	1.91	15.12	12.71
해외채권형		4	58	0.30	2.97	14.14	8.22
해외부동산형		2	183	-1.24	3.11	9.11	9.83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1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들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펀드 자금 동향

변액보험 순자산액
3,787억원 감소한
45조 6,441억원

국내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변액보험 운용규모는 지난 2월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변액보험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10월말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9월말보다 3,787억원 감소한 45조 6,44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주식형은 9월말보다 3,514억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변액보험 전체 규모에서 국내주식형이 차지하는 순자산액 비중은 9월말 18.6%에서 18.0%로 0.6%포인트 줄었다.

운용규모가 가장 큰 주식혼합형은 역시 1,71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혼합형에서도 314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채권형에서는 537억원이 증가했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액은 209억원 증가해 변액보험 내 순자산액 비중은 3.3%로 소폭 증가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 순자산액도 각각 702억원, 223억원 늘었다.

변액보험 전체에서 국내와 해외를 합한 주식형 순자산액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 나타났다.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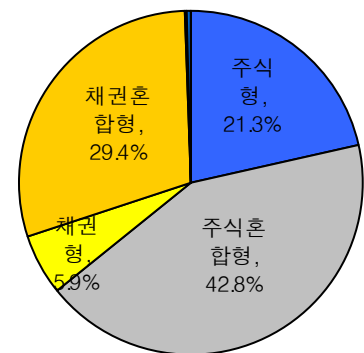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09년 11월 02일

(단위:억원)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9월말	10월말	증감
주식형	85	85,795	82,281	-3,514
주식혼합형	123	165,882	164,170	-1,712
채권혼합형	167	123,355	123,041	-314
절대수익추구형	10	1,137	1,133	-4
채권형	128	26,386	26,923	537
MMF	7	1,328	1,408	80
기타	3	14	14	0
국내 소계	523	403,898	398,972	-4,927
해외주식형	74	14,603	14,813	209
해외주식혼합형	82	30,687	31,389	702
해외채권혼합형	36	10,803	11,026	223
해외채권형	4	55	58	4
해외부동산형	2	182	183	1
해외 소계	198	56,330	57,469	1,139
전체	721	460,228	456,441	-3,787

(단위: 억원, 개, %)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 11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메트라이프 VA 배당주식형	392	일반주식	-1.56	4.42	42.44	32.76
메트라이프 VA 배당주식형	338	배당주식	-1.66	5.07	45.27	35.79
메트라이프 VUL 가치주식형	6,426	일반주식	-1.73	3.71	43.01	33.22
미래에셋 VA 주식성장형	759	일반주식	-2.84	2.72	23.48	25.26
뉴욕 VUL 장기자산배분형	53	일반주식	-2.86	1.90	33.22	28.90
미래에셋 VA 주식성장형	81	일반주식	-2.90	2.86	23.63	25.39
PCA VUL 배당주	173	배당주식	-3.25	4.82	49.83	38.94
라이나 VUL 혼합성장형	1,158	일반주식	-3.48	4.38	35.41	34.04
동부 VA 성장형	762	일반주식	-3.55	2.90	29.42	28.15
뉴욕 VUL 알파덱스펀드	51	일반주식	-3.65	3.24	45.09	43.22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메트라이프 변액종신 배당주식혼합형	139	일반주식혼합	-0.71	2.63	22.50	16.61
교보 VA 배당주식혼합형	192	일반주식혼합	-1.53	1.77	25.04	17.22
대한 VUL종신 가치주혼합형	918	일반주식혼합	-1.66	0.95	23.13	18.76
대한 VUL종신&변액CI종신 가치주혼합형 III	93	일반주식혼합	-1.99	1.91		
신한 VUL&VA Tops SRI혼합형	595	일반주식혼합	-2.03	1.98	25.26	21.01
동부 변액종신&변액CI종신 혼합형	75	일반주식혼합	-2.05	2.52	22.52	19.60
푸르덴셜 VA 성장혼합형	1,365	일반주식혼합	-2.07	2.09	19.57	17.43
대한 VA 가치주혼합형 II	10,214	일반주식혼합	-2.15	1.61	22.18	18.89
삼성 VA 10대그룹주식혼합형	60	일반주식혼합	-2.16	1.65	18.80	18.84
하나HSBC VA 안정성장형 II	694	일반주식혼합	-2.20	2.03	22.18	19.62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KB VUL&VA 배당주혼합형	254	일반채권혼합	-0.15	2.06	14.34	10.25
ING VUL종신 구조화혼합형	674	보수적자산배분	-0.79	0.55	5.32	3.76
푸르덴셜 VUL종신 배당혼합형	94	일반채권혼합	-0.80	1.35	17.40	13.49
푸르덴셜 VA 배당혼합형	81	일반채권혼합	-0.80	1.29	16.75	12.78
PCA VUL&VA 안정형1	273	일반채권혼합	-0.92	0.95	10.26	8.10
대한 VUL종신&변액CI종신 혼합형 III	116	일반채권혼합	-0.94	1.95		
카디프 VA 혼합형5	447	일반채권혼합	-0.95	0.93	11.12	7.10
푸르덴셜 VA 혼합형II	62	일반채권혼합	-1.02	1.05	12.39	10.21
흥국 변액종신 혼합형	68	일반채권혼합	-1.02	1.14	15.58	10.70
AIG VUL(2형) 안정혼합형	68	일반채권혼합	-1.02	1.37	12.28	9.71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흥국 VA 인덱스 채권형	71.04	일반채권	0.50	1.73	8.09	3.67
흥국 VUL 채권형	98.82	일반채권	0.45	1.14	10.13	5.30
흥국 VA 채권형	116.5	일반채권	0.40	1.30	8.22	3.45
미래에셋 VUL 채권형	124.2	일반채권	0.40	0.39	5.44	2.25
하나HSBC VUL 채권형	64.97	일반채권	0.35	0.44	5.59	2.71
금호 VUL&VA 채권형	58.6	일반채권	0.35	0.38	5.30	3.05
알리안츠 VUL 안정형	130.48	초단기채권	0.33	0.42	4.02	2.26
AIG VUL(1형) 채권형	239.95	일반채권	0.31	0.32	5.72	2.57
PCA VUL&VA 채권형	637.36	일반채권	0.30	0.12	4.84	1.30
흥국 변액종신 채권형	93	일반채권	0.30	1.39	11.03	6.24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개월 상위 Top 10

기준일: 2009년11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AIG VUL 동유럽주식형	51	유럽신흥국	3.84	14.46	42.56	72.22
신한 VUL&VA 봉쥬르차이나주식형	83	중국	3.74	2.66	61.67	41.53
뉴욕 VUL 천연자원펀드	123	에너지섹터	3.66	10.13	24.55	35.99
카디프 VUL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994	중국	3.36	1.93	61.30	41.71
AIG VUL 브릭스주식형	300	신흥국	3.13	11.63	50.03	58.43
메트라이프 VUL 브릭스주식형	81	신흥국	3.10	11.11	48.04	59.18
AIG VUL 중국주식형	165	중국	2.85	0.85	45.99	34.82
ING VUL 브릭스주식재간접형	52	신흥국	2.75	10.11	60.73	54.10
AIG VUL EMEA주식형	95	신흥국	2.47	12.65	40.32	40.87
카디프 VUL&VA 브릭스재간접형	1,264	신흥국	2.29	10.42	53.78	52.57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개월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UL 차이나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1,635	아시아신흥국	2.55	1.78	35.44	30.02
삼성 VUL&VA 유브릭스주식혼합형	330	신흥국	2.28	4.91	24.63	26.17
동양 VUL&VA 브릭스70주식성장형	51	신흥국	2.08	7.02	30.54	34.39
흥국 VA 인베스트동유럽혼합형	81	유럽신흥국	1.96	8.86	19.15	20.44
대한 VUL BRICs스타주식혼합형	287	신흥국	1.88	6.97	29.96	33.16
미래에셋 VUL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성장	659	아태(ex J)	1.82	4.58	32.42	29.02
미래에셋 VUL 친디아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4,299	아태(ex J)	1.72	2.51	38.21	32.73
대한 VA BRICs스타혼합형 II	894	신흥국	1.62	6.12	26.67	28.24
교보 VUL 파워브릭스인덱스혼합형	132	신흥국	1.28	4.11	29.13	24.58
교보 VA II 파워브릭스인덱스혼합형	493	신흥국	1.23	3.54	27.96	23.78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개월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A 차이나안정자산배분형	192	아시아신흥국	1.42	1.27	19.48	16.14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자산배	940	아태(ex J)	1.09	2.63	18.82	16.05
미래에셋 퇴직연금 친디아증권투자형(채권혼합)	112	아시아신흥국	1.08	2.15	27.21	20.29
미래에셋 VA 친디아안정자산배분형	2,998	아시아신흥국	1.06	1.50	21.51	17.41
신한 VA 글로벌머징혼합안정형	361	신흥국	0.73	3.14	16.99	15.46
하나HSBC VA 글로벌혼합형	238	글로벌	0.23	1.52	16.59	11.68
미래에셋 퇴직연금 글로벌APFocus증권투자형	68	글로벌	-0.06	2.48	24.51	17.80
미래에셋 VA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95	아태(ex J)	-0.06	1.93	17.37	14.47
미래에셋 VA Korchindia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	798	신흥국	-0.48	1.22	16.22	13.94
삼성 VA 더블유인덱스30혼합형	405	글로벌	-0.50	2.08	4.76	3.38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